

자체실적인정 규정(안) 제정

자체실적인정 규정(안) 제정

ESCO협회는 자체실적인정 업무를 위한 규정(안)을 제정 중에 있다. 이 규정(안)이 제정되면 산자부 승인 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에 정부자금활용사업만 ESCO실적으로 인정해 주던 것을 민간자금활용사업도 인정해주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규업체들의 ESCO 시장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ESCO마트 국제적 행사로



격년제로 열리는 에너지전시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부터 매년 개최로 바뀌에 따라 ESCO마트도 매년 열리게 됐다. ESCO투자사례나 기술발표 등 우수한 ESCO들의 공로를 포상하고 사례발표를 통해 신기술을 전파하는 ESCO마트는 열릴 때마다 ESCO를 에너지수용가들에게 홍보하는 장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런 ESCO마트가 올해부터는 국제적 행사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협회와 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외국의 우수한 ESCO제도나 기술, 사례 등을 소개하고 외국의 ESCO 관계기관을 초대해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창립7주년 등반예정



ESCO협회가 창립 7주년을 맞아 등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열리는 등반대회는 회원사간 친목도모와 정보교류의 장으로 지난해에는 청계산을 등반했다.

신규회원사소개

신규회원사소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에도 5개의 ESCO가 ESCO협회 정식회원사로 가입했다.



벽산엔지니어링(주), (주)효성, (주)삼흥파워텔, (주)케너텍, (주)화인이 그 주인공이다.

벽산엔지니어링은 지난 1979년 정우엔지니어링(주)으로 출발해 1999년 벽산그룹으로부터 독립한 설계감리전문회사로 30년 동안 토목, 플랜트, 환경 등 다방면에서 활동해 왔으며 지난 2002년 시공분야에도 진출, 환경시공 및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SCO사업범위로는 고효율기기개체사업, 소형가스열병합발전시스템, 공정개선 등이며 지난해 9월 5일 ESCO에 등록했다

지난 1999년 ESCO에 등록한 효성은 공공시설물과 산업 생산설비 시설의 중요한 동력원인 A.C., D.C., 전동기, 감속기, 발전기, 각종 주물 제품과 석유화학 PLANT 및 발전소용 각종 제관물, Crane 등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국내 기간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또 최대 20,000마력까지의 전동기를 생산하고 있고 자동생산 Line을 보유, 월간 4만대 이상의 전동기 공급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풍력 발전용 Tower를 위시한 각종 Tower류, Heat Exchanger, Pressure Vessel 등 국내외 화학 장치류 및 송풍기, Crane, 신선기, 연선기 등 각종 전문기계 장치류를 자체 설계, 제작하고 있다. 효성은 자체 기술력과 생산력을 바탕으로 ESCO사업을 도모하고 있다.

창원에 위치한 삼흥파워텔은 지난 2000년 ESCO에 등록했으며 전기공사, 통신공사, 전기시설물안전점검 및 검사대행업을 비롯해 ESCO를 통해 지역의 에너지절약정책에 이바지하고 있다.

국내 아파트 소형열병합발전 1호를 시공한 것을 비롯해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공동주택 소형열병합발전을 시공해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는 케너텍은 최근 국내 1호 CES사업자로도 활약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소비자시민모임이 주는 에너지위너상과 국가가 에너지절약유공자에게 주는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바 있다.

(주)화인은 지난해 10월 ESCO에 등록했으며 산업체, 건물 등의 에너지진단을 비롯한 공정개선과 고효율기기 교체 등을 주요 ESCO사업영역으로 채택해 실행하고 있다. ESCO관련 기술과 사업에 전문경력을 가진 인력들로 구성된 맨파워 자체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승진 소식



ESCO협회 회원사이자 부회장사인 삼성에버랜드의 황건희 유닛장이 상무로 승진했다.